

10

하나님 대신 자기를 좇게 한 여로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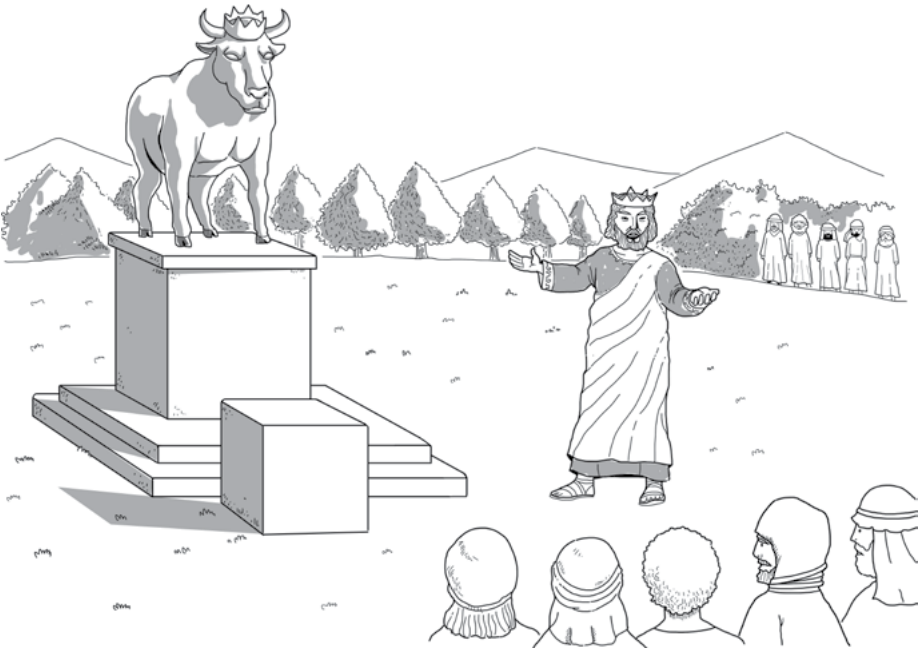
왕상 12:25~33, 13:33~34

찬송가 372장 (나 말은 본분은), 찬양 11장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 배울



1. 자기를 좇게 하려는 여로보암의 생각이 그와 온 집의 멸망을 가져왔음을 압니다.
2.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함을 압니다.



저가 또 [] 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 을 삼고 팔월 곧 그 달 십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벳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 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 은 벳엘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 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벳엘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왕상 12:31~33)



을 이해하기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를 평가할 때 언제나 두 가지 삶의 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란 다윗이 일생 동안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면 그 집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그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 훗날 왕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막을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그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 12:43)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Jn 12:43)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봅시다(왕상 12:12~17).
- ②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세 가지 찾아보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적어 봅시다(왕상 12:28~33).

- ③ 「말씀을 이해하기」에 정리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해 읽어 보고 두 길을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 ④ 나의 생활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써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레 2:1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잠 25:2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마 6: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마 23:28

↓

요 5:44

↓

요 17:4

↓

행 12:23



지키지 못할 장담

어느 농부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바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충성도 다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말 스무 필이 있다면 두 필은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무렴, 십일조를 못 바치겠는가? 말 스무 필이 있다면 당연히 두 필을 바쳐야지. 그런데, 나는 말이 없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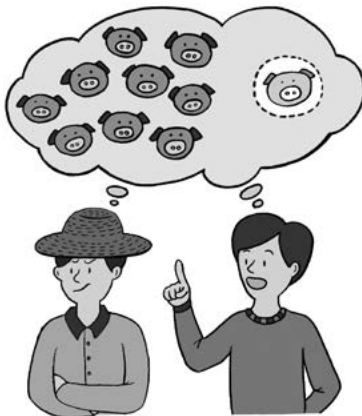
“그럼 소 열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아니, 십일조를 안 바칠 수 있겠는가? 열 마리 모두라도 바치지. 그러나 나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잖은가?” “그럼, 돼지 열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이때 그 농부는 버럭 역정을 내며 “내가 돼지 열 마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나오더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을 앞으로 가지게 되면 바치겠다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돼지 한 마리는 바치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런 모순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만큼만 부자라면 나도 바치겠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바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개 같은 입장이라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장담도 허무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부터 하는 충성과 맹세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후 8:12)



질문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여러 아내를 둔 것은 죄가 아십니까?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라 하나만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창 16:2)

당시 이방의 관습으로는 첩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 성급히 사라의 여종을 취한 것입니다.

야곱도 이와 같이 행합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두어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첩을 취하고 아내를 둘 이상 거느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부일처제를 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 2:24)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이런 의미에서는 바르지 않게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아내를 둔 결과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고통을 받아야 했고, 야곱도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은 족장들이 여러 아내를 둔 것을 십계명에서 정한 간음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혼을 해서는 안되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마 19:8), 하나님은 같은 이유로 족장시대에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아내만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후 3: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딤후 3:12)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로 인한 우상숭배를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서로 함께 지낼 수도 없었지만 소중한 우정을 끝까지 잘 가꾸어 나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모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 승리한 왕 다윗

다윗은 목동 시절에 기름부음을 받은 후 왕으로서 일생을 마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밋세바의 사건으로 죽을 때까지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 솔로몬의 성전 건축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터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재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써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잠언,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의 사후,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 대신 자기를 좇게 한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그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습니다.

정리활약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